

# 전남 郡 지역 도시계획 '주먹구구'

일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도시계획업무를 다루는 전문직 배치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를 제외한 대부분 군 단위의 도시계획업무는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이나 토목직 공무원들이 다루고 있어 택지조성과 시가지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흥군의 경우 2만명 인구가 거주하는 장흥읍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수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지역(1·2·3종)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아파트 공

## 장흥군 등 주택수요 대처 못해 아파트 턱없이 부족

### 대부분 행정·토목직이 업무 다뤄 전문직 배치 시급

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현재 군 지역에서의 아파트건설이 가능한 용지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용도지역 제2종(12층 이하)과 3종(20층 이하)으로 구분돼 있으나 장흥군은 지난 2003년도에 '농촌지역 정서상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군 조례로 12층 이하로 제한시켜 아

트 시공업체들이 수익성 명분을 내세워 시공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해당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연말에 이주민(145세대)에 대한 보상절차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아파트형 공동주택 보급이 절실한 형편으로 장흥읍에 아파트 수요 희망 세대는

200여 세대에 달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가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데는 수요조사→자문→도심의 등 5년에 이르는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담당부서에 도시계획 분야를 전공한 '도시계획직'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시를 제외한 군 단위로 해남, 담양, 강진군 등이 도시계획직 각 1명이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 배 가지치기에 '전동 가위' 등장

나주시 배농가들이 전동가위를 이용해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다. 나주시는 고령화, 여성화로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배 농가를 위해 휴대용 전동가위 50대를 1억2천만원에 구입해 임대해 주고 있다. <나주시 제공>

## 여수 소리도 해역에 대규모 암초지대

### 해양조사원 발견 "항행 선박 주의해야"

국립 해양조사원은 여수시 소리도 동쪽 약 1.5km 바다에서 대규모 암초지대(사진)를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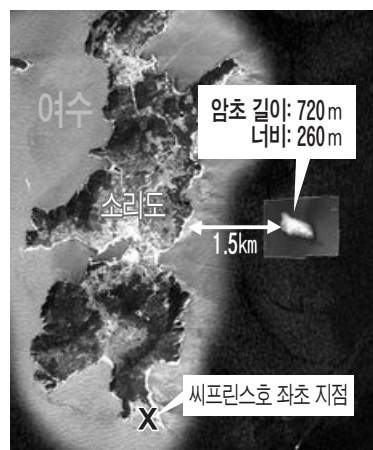
이번에 발견된 암초 지대는 길이 720m, 너비 260m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뻗어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주변 수심은 25~30m인데 비해 암초의 가장 얇은 수심은 10.9m 밖에 안돼 이 해역 주변을 지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해양조사원은 설명했다.

해양조사원은 2003년부터 우리나라 영해 12해리 내 연안의 해저지형, 항해장애물, 천부지층 같은 해저정보

를 조사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선박들이 자주 오가고 해양사고 발생률이 높아 최신의 해도정보가 필요한 바다의 해저면은 정밀 위성측위시스템(DGPS), 멀티빔 음향측심기, 해저면영상탐사기, 천부지층탐사기 같은 첨단 장비를 이용해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해양조사원은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95년 7월23일 여수시(당시 여천군) 남면 소리도 앞바다에서 태풍 '페이'로 인해 호남해운 소속 14만5천t급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좌초됐다. 이 사고로 5천35t의 원유와 병커유류 유출돼 남해안 전역을



덮쳤고, 양식장 1만ha를 황폐시켜 1천50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씨프린스호 사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최악의 기름유출사고로 기록돼 있다. /중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학교 통폐합 반대"

광주·전남 YMCA 회견

광주·전남YMCA협의회는 "농어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명박 정부의 소규모 통·폐합 및 교원정원 감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YMCA협의회는 11일 전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교원 감축은 곧 학생과 학부모의 불권과 부담으로 이어져 '교육격차 해소'라는 정부의 교육정책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받는 수업의 질은 떨어지고 일부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거나 타지로 유학 가야하는 등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철호기자 khh@

## 고흥군 동계 전지훈련지 자리매김

온난한 기후 등 천혜의 조건...17일부터 고교 축구연맹전도

고흥군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고흥 공설운동장과 보조 경기장 등 6개 구장에서 광운대 등 대학 5개팀, 대신고 등 고등학교 11개팀 등 총 16개팀 선수와 임원 700여 명이 동계 전지훈련을 마쳤다. 또 오는 17~28일 12일간 '제 4회

춘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이 고흥 공설운동장 등 4개소에서 53개팀의 선수 및 학부모 등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고흥이 동계 훈련지로 각광받는 까닭은 연간 일조량이 2천566시간에 달하고 겨울철 평균기온도 4.3℃로 온화한 최적의 기후조건과 함께 스포츠 인프라가 잘 구축돼있기 때문이다. 고흥군은 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

2면, 공설운동장 등 스포츠 기반시설을 다진 상태이며, 올해 도양 축구장과 김일 기념체육관 등을 완공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전지훈련 선수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

## 여수 택시 선진화 시동

동시통역·영상기록장치 등 장착 브랜드화 추진

여수시가 오는 7월까지 모든 택시에 영상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 등을 장착하는 택시브랜드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오는 7월까지 지역내 1천400여대 전체 택시에 영상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 동시통역 장치, 영수증 발급기 등 4종류의 설비를 갖추는 택시 브랜드사업을 벌인다.

이들 4종류 기기 장착비용은 50만원대로 20%는 자부담이고 나머지 80%는 시·도비로 지원된다.

특히 이번 브랜드택시 사업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때의 국방문객에게 택시이용의 불편

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동시 통역장비'를 설치한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으로 2012 여수박람회때 국내외 관광객에게 이용 편의제공과 함께 서비스 향상에 따른 수요충출을 통해 택시사업계의 수입증대와 경영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 택시 고급화 및 정보화 촉진, 택시 운전자로 수직을 통한 교통정책자료 활용 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브랜드택시 사업을 통해 수요충출, 운수종사자 수입증대, 경 개선, 산업 활성화와 서비스 향상에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박영규기자 ykpark@



## 나주시·日 돛토리현 '쿠로즈미 가옥' 공동 보수

나주시와 일본 돛토리현 쿠라요시시가 근대 건축물 보수를 통해 양 지자체간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나주시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영산포 쿠로즈미 가옥(사진) 자문회의에 돛토리현 문화재과장 사나다 히로유키와 설계전문가를 비롯해 동계 김홍기교수와 전태우박사,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조사와 자문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고 있다.

시는 일제강점기에 영산강 내륙항구의 중추점이었다던 영산포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영산포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일본인 가옥 가운데 가장 보존상태가 좋고 큰 규모를 자랑하는 쿠로즈미 가옥 보수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나주시는 일본 돛토리현 쿠라요시시와 1993년부터 국내 조달이 어려운 일본기와나 목재, 일본 전통 목조건축 기술의 구현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해오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 강진 생활자기 '설 선물용' 인기

반상기·차잔세트, 머그잔 등 청와대 납품 20여 개인요 업체 작년비 판매 50% 늘어

강진 청자촌에서 생산되는 청자 생활자기가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청자도요지내 청자촌에 입주한 20여 개인요 업체가 설명절을 앞두고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보다 50% 정도 늘어난 매출로 설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자 생활자기 매출이 2억5천만원이었으나 올해는 4억원으로 경증 뛰었다. 생활자기 제품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웰빙 열풍과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음식을 장기간 저장할 경우 환경호르몬 등 유해성분에 노출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자촌에서 생산되는 생활자기는 반상기세트(3~10만 원)와 차잔세트, 머그잔, 술잔을 비롯해 최근 청와대에 납품해 전국적인 시선을 끈 차막걸리 주병



세트(7만~10만원) 등 다양하다. 흙을 섭씨 1천300℃의 고온에서 구워낸 도자기 식기는 항균, 위생처리돼 플라스틱용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청자 생활자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진청자조합은 지난해 고려청자 재현품과 생활자기 등 500여 점이 미국 세라존주식회사에 수출했다. 미주대륙 수출물량은 지난해 2만달러를 시작으로 올해는 60만달러 여치가 미주대륙에 수출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A large section of the page containing various advertisements and notices. The most prominent one is a large black box with white text that reads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Court Auction Real Estate Sale Notice). Below this, there are several smaller advertisements, including one for '신원' (Shinwon) and another for '신원' (Shinwon) with a list of items and prices. The bottom right corner features the logo and name of '광주지방법원' (Gwangju District Court).